

쉬었다가 가자고 하더니...

이 정 원 /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장

Q 저기요....
어제 남자 친구와 만났어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데 그 동안 몇 번 만났었어요. 저녁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조금만 마시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잘 견지를 못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술 좀 깨고 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술 먹고 들어갔다가 엄마한테 혼났다면서 잠깐 쉬었다 가면 된다면서 모텔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해요.
혼자 두고 가기도 그래서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자는 척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반항을 했는데도 강간을 당하고 말았어요.
내가 왜 거길 따라서 들어갔을까 정말 바보같고 후회되고, 믿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A 정말 힘들었겠네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배신감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실수부분은 수정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특히 성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술을 마신 후에는 어떻게 할건가 미리 방법을 마련해두어야 하고, 여관에 들어가게 될 경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야 합니다.
미리 예방하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지요.

힘겨우시더라도 소중한 나를 위해서 더욱 힘을 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원(산부인과)에 가서서 검사와 치료, 임신예방을 해야 하고, 정신과 치료, 경찰
 고소 등은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22**

성폭력피해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씻지 말고 병원 가기

- 상처와 성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임신예방(72시간 내 사후피임약) 등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산부인과에 꼭 가야 합니다.
- 입었던 옷은 빨리 말고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담아둡니다.(증거물)

성폭력상담소나 1366에 전화하기

- 피해 후 빨리 상담기관을 찾을 경우 병원이나 경찰들과의 연결이 훨씬 수월하
 고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상
 담소를 통해 지원하는 것임)
- 정신적 후유증으로 힘들 경우 정신과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지금 괜찮다고 정신과 치료를 등한시할 경우가 있는데 후유증 예방을 위해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하기

- 두려운 생각에 신고나 고소를 피하기 쉬우나 지속피해를 막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여성폭력에 대해 인식이 높은 각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이나 각 경찰서 여성청
 소년계에 신고나 고소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